

“국정농단·정윤희 문건·세월호 자체 조사”

靑 민정수석 차원, 우병우 세월호 외압 의혹 1차 대상... 검찰 간부까지 확대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적폐정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 등 신임 참모들과 오찬을 하며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운영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다음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순실 건도 있고 정윤희 건도 있고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농단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를 민정(수석)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윤희 문건 파동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해당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목인 의혹 등이 1차적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조사 대상이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수석은 우선 정윤희 문건 사건 자체 조사와 관련, “과거에 폭로 당사자인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이 처리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민정 차원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란 말씀으로 이해가 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비서관으로 이 사안을 원만히 처리해 수석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에 조사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세월호 특별조사위 문제와 관련, “세월호특별조사 기간을 연장 못한 것이나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 의심이 제기되는데 ‘이 문제들을 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되는) 지점들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로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위원회 연장이 무산된 경위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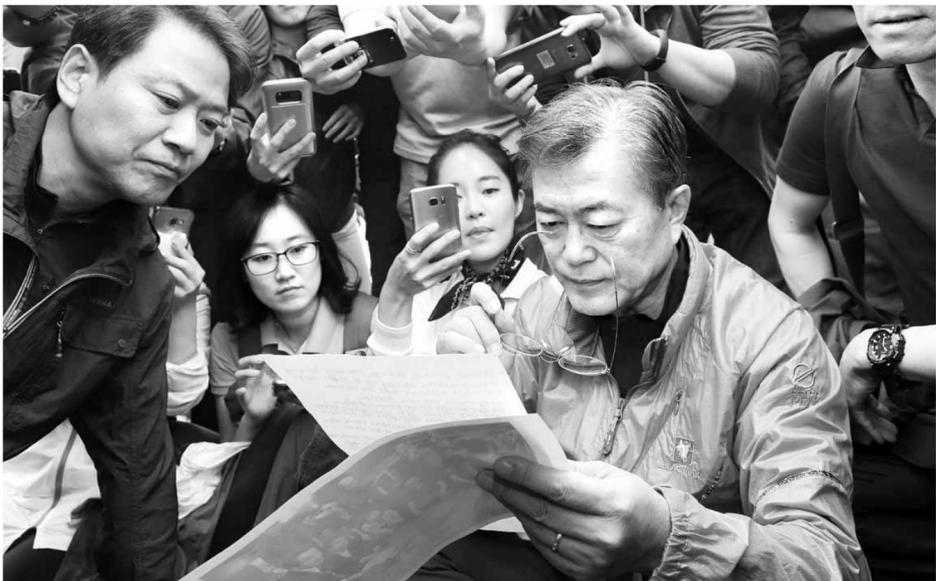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순실씨의 재산 형성 문제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대통령께서 선거기간에 부정축재 한 부분, 권력을

남용해서 축재된 것을 환수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을 얘기해서 그런 방안 강구해보란 말”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국 민정수석이 업무 방식과 관련, “합법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점에서 검찰 등이 우선 거론된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절차에 따라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지휘나 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 보낸 편지 읽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주말인 지난 13일 오전 기자들과 산행 전 청와대 경내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소통 나선 문대통령...세월호 기사에 직접 댓글

靑 직원과 식사·기자단과 등산·인천공항 찾아 비정규직 해결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 소통행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월호와 관련한 한 기사에 직접 댓글을 단 것으로 14일 뒤 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기사 ‘세월호 선내 수색서 ‘사라 뺐’ 추정 뺨 다수 발견’에 달린 댓글에 답글을 달았

다. 문 대통령이 답글을 단 댓글은 ‘안산의 합동분향소 벽에 붙어있는 단원고 학생 어머니의 편지’라고 회자한 글이다.

문 대통령은 ‘문변’이라는 아이디를 통해 “현철이, 영인이, 은하, 다윤이, 고창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 이영숙 씨”라며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의 이름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돌 때 새 명주실을 놓을 걸, 한 달이라도 더 품을 걸 후회하며 엄마가 지옥을 갈 테니 부디 천국에 가라는 절

절한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이 글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답글을 달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앞다퉈 답글을 달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엔 대선기간 함께 고생한 전담기자들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했더라 기자들과 함께 복악산 산행 길에 올랐다.

등산이 취미인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청와대 구내식당

에서 삼계탕으로 점심을 함께했다.

앞서 지난 12일엔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기술직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식권함에 식권을 넣은 뒤 배식대 앞에 줄을 서서 식판에 음식을 직접 담았다. 메뉴는 새우 볶음밥과 매밀국수, 열무김치 등으로 직원들이 평소 먹는 3000원 짜리였다.

운영장 국민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여민관에서 대통령이 직원과 오찬을 같이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들은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일자리 관련 행사를 했다.

첫 외부 공식행사인 이날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 신속 대응

NSC 소집, 북한 강력구탄·軍 철저대비 주문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올 만인 14일 오전 5시27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지시하고 대응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27분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70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가 상당히 긴 것으로 미뤄 시험발사는 일단 성공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쏜 평북 구성은 평양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내륙으로, 올해 2월12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을 시험발사한 곳이다. 당시 북극성 2형 미사일은 500여km를 비행했고 최고고도는 550여km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날 29일 이후 15일 만이다. 보름 전 북한이 쏜 미사

일은 신형 미사일로 추정됐고 발사한 지 수분 만에 공중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7차례에 달한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탐색과 함께 한반도 정세 변화로 북·미,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몸값”을 올리고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22분 뒤인 오전 5시49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 소집을 지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전 6시8분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자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김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오전 7시 NSC 상임위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한 시간 뒤인 오전 8시에 NSC 상임위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문대통령 내외, 흥은동 사저 떠나 靑 관저 입주

김정숙 여사 “주민들께 감사”

‘광화문 집무실’ 2019년 예상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13일 흥은동 사저(私邸)를 나와 청와대 관저에 입주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오전 대선 때 전담 취재를 맡았던 기자들과 산행을 하고 오찬을 함께 한 뒤 청와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혼자 이사를 진두지휘했다.

온 종일 이사 작업을 행간 김 여사는 오후 5시에 사저에서 나와 환송하러 나온 주민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청와대 관저로 향했다.

오후 3시에 갑자기 쏟아진 비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했으나, 인근 주민과 지지자 30여명이 끝까지 남아 청와대로 향하는 영부인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경남 양산에 자택을 둔 문 대통령 내외는 2012년 대선 때부터 딸 다혜씨 소유의 구기동 빌라에서 지내오다 지난해 1월 흥은동 사저로 이사 왔다.

한편,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

인 ‘광화문 집무실’은 오는 2019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관저 역시 광화문 인근에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비워 시민 공간으로 돌려주는 대신 기존 건물인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고, 관저는 현재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14일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모델링 예산 편성과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전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광화문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 말이나 2019년 초는 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본사 인사

▲박형진(전북취재본부 고창주재 기자) <5월 15일자>

▲고훈석(전북취재본부 고창주재)의 원문직 <5월 12일자>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예배 및 심포지엄

● 일시 : 5월 18일(목) 오후2시
 ● 장소 : 광주한빛교회당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35 T.525-6151)
 ● 주제 : “훗날로 있는 오늘,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
 ● 순서 : 1부 기념예배 -사회: 노일경 목사(한빛교회) -말씀: 홍인식 목사(순천중앙교회) 2부 심포지엄 -사회: 박용수 전로 -강사: 틈서록 기자(5.18당시 미국기자)
 ● 문의: 총무/전점용목사(010-8606-1202)
 ● 주최: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
 ● 주관: 한국기독교청년회(총합)전남노회인권위, 광주노회인권위, 광주동노회인권위, 광주YMCA / 광주YWCA / 광주CBS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2,100㎡ 매 36억원
- 차평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 (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상가건물 대 440㎡ 건물 1,500㎡ 매 25억
- 쌍암동 4층 상가건물 대 610㎡ 건물 1,100㎡ 매 29억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물961㎡ 매 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점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점 990㎡ 5억원
- 광산구 내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91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의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 주택

-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 신가동 생산녹지 답745㎡ 매3.65억원
-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3,070㎡ 매6.5억원
-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 매곡동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 문의 010-2572-4663